

제목: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말씀: 욥기 23장 1-17절

욥은 친구들의 여러 가지 질문과 충고에 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이 가지고 있던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으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깨달음입니까?

- 1) 나는 _____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6-7절)
- 2) 결국 하나님께서 _____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10절)
- 3)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_____이 있습니다. (15-1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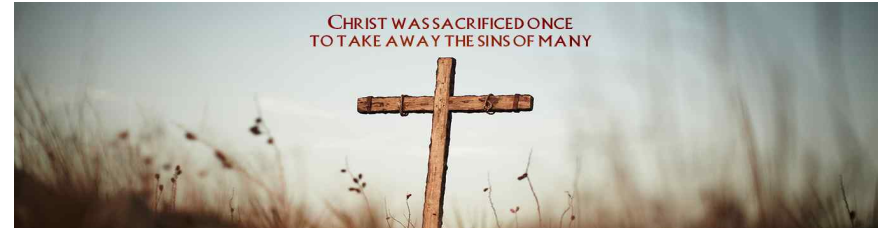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Brand New Heart to God" (2 Corinthians 5: 17)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욥기 23장 1-17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Jobs 23: 1-17* 구약 74 페이지 Presider
-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Will of God I Our Life* Rev. Kim
- 성찬식 다같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일까?)

며칠 전 정말 오랜 만에 백화점을 방문했다. 수개월 동안 그랬듯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1년을 넘게 볼 수 없었던 광경에 너무나 놀랐다.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가고자 했던 곳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2층 구석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 곳에서 식사를 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서 생각을 해 보니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에 너무나 익숙해 저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내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상황과 환경에 연약한지 깨달았다.

내 개인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다. 그랬더니 많이 변해 있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이전부터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헌신적인 봉사가 되며 부르심에 더욱 보답하고 뜨거운 가슴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 이전보다 열정과 헌신 그리고 뜨거움이 이전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아지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어쩌면 나의 게으름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적당히 내 스스로에게 이해가 될 만큼 잘 섞여서 마치 새롭게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천천히 가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생활을 잘 뒷받침 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작 나의 게을러진 신앙생활을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지는 않은 것이다.

많이 창피하고 내가 과연 평생을 믿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끝나면... 이라고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정작 지금.....에 대하여는 깊이 고민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1-12절)라고 하신다.

그 열심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 번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과연 내가 더욱 가지고 누려야 할 신앙생활은 이러한 모습인가? 아니면 새롭게 단장 된 열정으로 높이 뛰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열심을 내라고 하신다. 지금이 더욱 중요하고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새로운 기도 제목이 점점 더 많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는 이 때에 믿는 우리들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힘을 합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 만에 함께 교회에서 예배 합니다. 매주 예배에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간단히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10) St. Andrew's 교회 사역을 위하여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새벽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다시 시작 됩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친교

앞으로 당분간 예배 후 친교 준비는 교회에서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탁은 가능하겠지만 비용은 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